Fund Analyst 김후정
02-3770-3605 / hujung.kim@yuantakorea.com

우리가 1분기에 놓친 투자기회들

1. 신흥국 주식, 국내 대형주 강세

- 2016년은 4년만에 신흥국증시 수익률이 선진국 증시 수익률 상회. 연초 이에도 신흥국 강세 흐름은 이어지고 있음
- 연초 이후로 중남미주식, 신흥아시아주식, 신흥국주식, 국내테마주식(그룹주포함) 등의 유형이 수익률 양호. 반면, 해외부동산과 국내채권형, 채권혼합형은 상대적으로 부진
- 대형주 강세로 액티브주식유형과 국내주식테마(그룹주) 유형 성과 우수

2. 자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이동

- 연초 이후 펀드 유형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성과가 부진한 유형으로 여전히 자금 순유입
- 성과가 좋아진 국내주식펀드에서는 연초 이후 3조원 정도 자금 순유출
- 위험자산으로의 신규 유입 감소는 미래의 투자기회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3. 주주환원정책과 지배구조이슈

- 연초 이후 '하이지주회사플러스'와 삼성그룹주펀드 성과 우수
- 삼성그룹주펀드는 계열사 실적 호조와 주주환원정책 강화로 펀드 성과가 호조를 보이고 있음
-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정책은 향후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투자기회로 활용하는 선구안 필요

1. 신흥국 주식, 국내 대형주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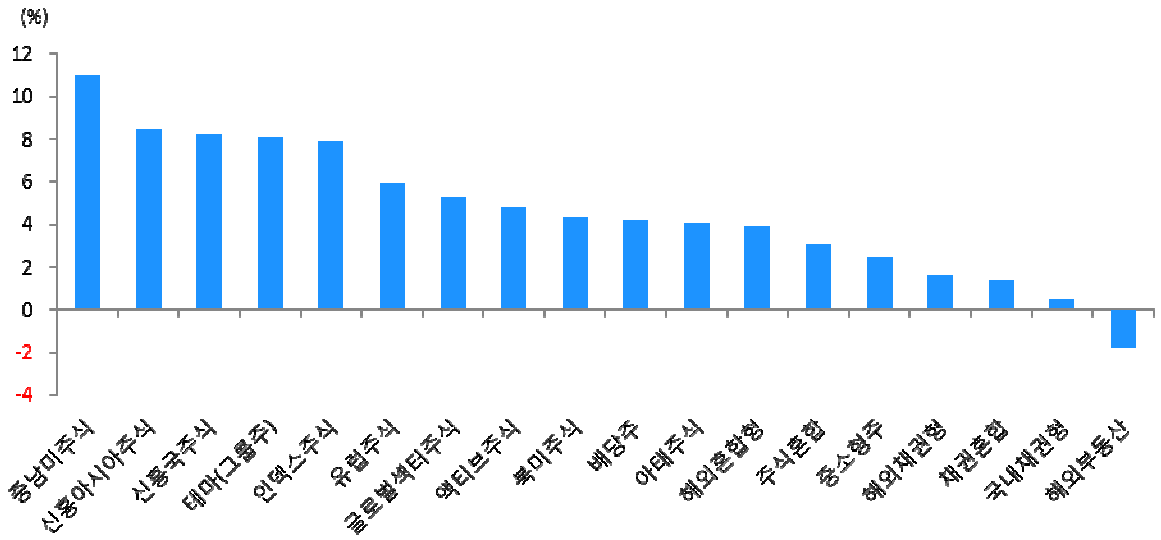
2016년은 4년만에 신흥국증시 수익률이 선진국 증시 수익률을 상회하였으며, 이 흐름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경기 회복이 신흥국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초 이후로 중남미주식, 신흥아시아주식, 신흥국주식, 국내테마주식(그룹주포함) 등의 유형이 수익률이 높았다. 반면, 해외부동산과 국내채권형, 채권혼합형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시현하였다. 원자재가 강세를 보이면서, '블랙록원드광업주', 'JP모간천연자원','블랙록월드골드' 등이 포함된 글로벌섹터주식 유형도 강세를 기록하였다.

대형주 강세로 오랜만에 액티브주식유형이 배당주나 중소형주 같은 스타일 펀드보다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삼성전자 등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대형주 비중이 높은 국내테마주식(그룹주포함)은 국내주식유형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았다.

반면 안전자산 선호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던 국내외 채권관련 유형은 연초 이후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시현하였다. 일본리츠유형이 -4.21%의 성과를 보여 해외부동산유형은 -1.78%의 수익률에 그쳤다.

[챠트1] 연초 이후 주요 펀드 유형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해외에서는 신흥국 관련 주식 유형이 우수한 성과를 기록, 국내에서는 대형주 강세로 그룹주펀드를 포함한 국내주식테마 유형이 가장 성과 우수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 월 6 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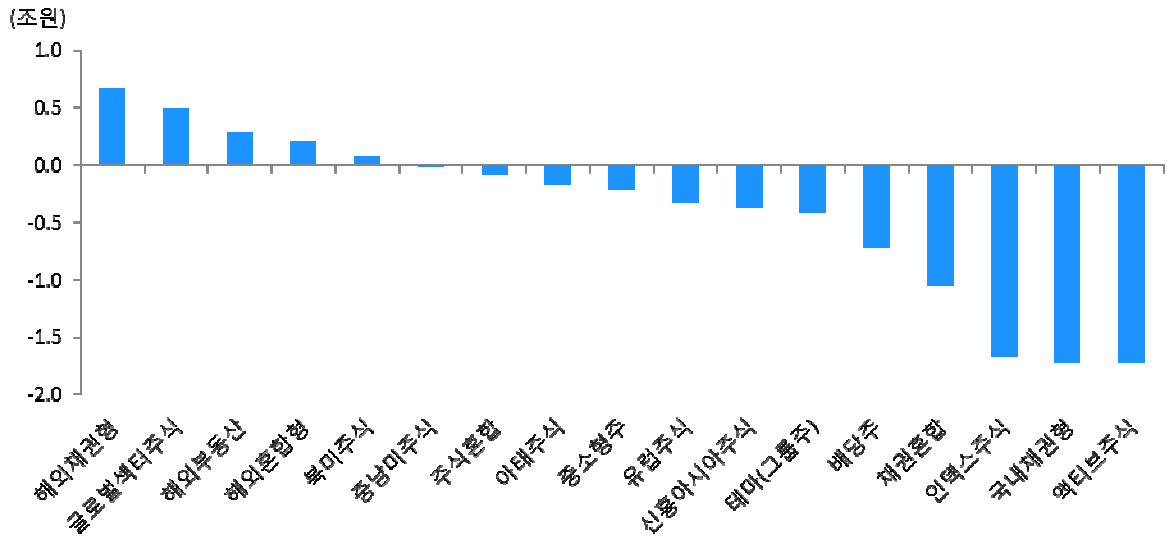
2. 자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으로 이동

연초 이후 펀드 유형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성과가 부진한 유형으로 여전히 자금이 순유입되었다. 해외채권형과 해외부동산 등은 부진한 성과를 내어지만, 연초 이후 각각 6645억원, 2909억원의 설정액이 순증가하였다.

대형주 강세로 수익률이 좋아진 국내주식 유형은 다시 환매가 늘어나는 양상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주식(ETF제외)펀드에서 2015년과 2016년 각각 1조 5389억원과 6조 8297억원이 빠져나갔다. 올해에는 1분기에만 2조 9723억원이 순유출되면서 국내주식펀드 설정액은 3월말 기준 51조 9082억원이 되었다. 국내주식펀드 유형의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의 환매 욕구는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목표수익률을 달성한 뒤에는 펀드의 이익은 실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신규 자금의 유입은 크게 줄어들고, 주가 상승에 따른 환매가 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MMF, 은행수시입출금 등 단기 부동자금으로 여유자금이 이동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향후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기회를 놓치고 있다. 미래의 투자 기회 확보 차원에서 여유자금 운용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챠트2] 연초 이후 액티브주식, 인덱스주식, 배당주, 테마주, 중소형주 등 국내주식펀드에서는 4.7조원이 빠져나갔음. 반면, 해외채권형과 글로벌섹터주식, 해외부동산으로는 자금 유입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 월 6 일 기준

3. 주주환원정책과 지배구조이슈

연초 이후 국내주식펀드의 펀드별 수익률을 살펴보면, 삼성그룹주펀드들이 수익률 상위 펀드를 차지하고 있다. 업황 호조에 의한 실적개선과 미래 신사업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과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 등도 펀드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

'하이지주플러스'는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전환이 예상되는 기업에 투자하며, 액티브펀드 중에서 최근 1년수익률이 가장 높다.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인센티브를 축소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가 되었으며, 기업은 법이 통과될 경우에는 지주회사 전환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주요 그룹들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지주회사 체체로 전환을 했거나, 전환을 할 예정이다. 향후 1-2년은 국내주식시장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펀드가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정책 강화도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챠트3] 연초이후 국내주식펀드 성과를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강세로 삼성그룹주펀드가 수익률 상위 기록

펀드명	설정일	운용사	순자산	수익률					
				3개월	연초이후	1년	3년	5년	설정후
하이지주회사플러스	2007-01-16	하이	785	17.7	18.1	31.4	24.3	27.5	125.0
IBK삼성그룹	2011-05-17	IBK	239	10.1	12.4	14.8	-0.9	-3.1	-2.2
마이다스베스트트리오	2006-01-27	마이다스	74	11.5	12.1	13.8	18.5	25.6	107.0
동양모아드림삼성그룹	2006-08-22	동양	383	9.4	11.0	12.5	-6.5	-13.4	97.4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 2	2007-10-18	한국	7,984	8.8	10.4	12.1	-6.5	-11.9	18.6
한국투자삼성그룹적립식1	2004-11-02	한국	6,374	8.7	10.4	12.2	-7.2	-12.6	281.9
한국투자삼성그룹 1	2008-08-21	한국	1,355	8.7	10.4	11.9	-6.7	-12.1	50.5
한국투자골드적립식삼성그룹1	2007-11-02	한국	799	8.7	10.3	12.0	-6.7	-12.1	45.3
한국투자삼성그룹리딩플러스 1	2006-10-16	한국	1,333	8.3	9.7	12.3	-2.5	-3.0	103.0
한국투자삼성그룹 2	2005-11-02	한국	106	8.0	9.5	11.4	-5.9	-11.3	121.0
KB그로스&밸류	2005-11-03	KB	224	8.1	8.9	10.5	-3.6	0.4	100.4
한국밸류10년투자100세행복	2012-03-27	한국밸류	337	8.3	8.8	10.3	25.3	98.9	112.3
마이다스신성장기업포커스	2010-09-16	마이다스	1,678	8.0	8.8	8.1	31.9	20.6	41.4
미래에셋디스커버리 3	2005-12-08	미래에셋	1,444	7.3	8.8	7.7	12.1	6.5	85.6
KB광개토	2005-07-05	KB	216	7.9	8.7	10.3	-0.5	3.0	138.6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 월 6 일 기준